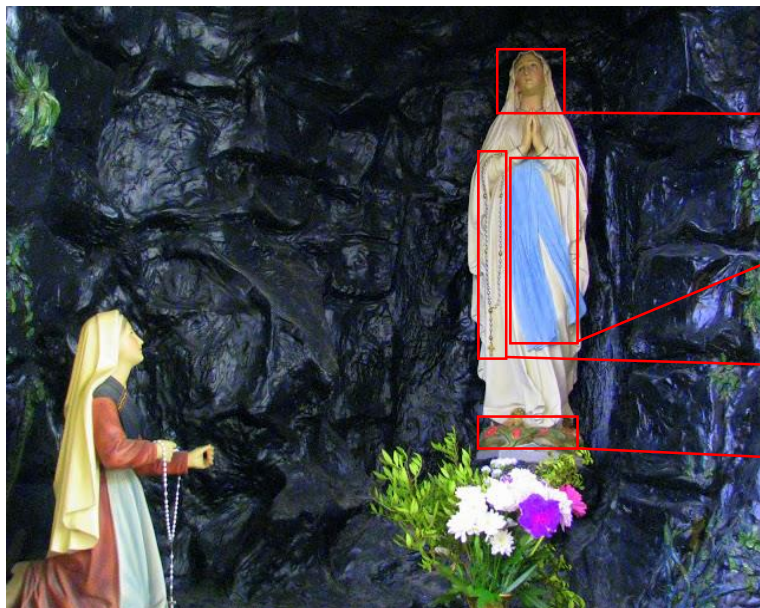




성모님의 특징



하얀 베일로 머리와 어깨를 덮음

하늘색 커리피

팔에는 묵주를 두르고 계심

발 아래 노란 장미



발현과 메시지

첫 번째 나타나심 - 1858년 2월 11일 목요일

부인은 벨라데타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한 다음 순식간에 사라졌다.

아홉 번째 - 1858년 2월 25일 목요일

"부인께서는 '생물로 가서 마시고, 또 씻어라!'라고 말씀 하셨습니다."라고 말했다.

벨라데타는 부인이 지시하는 대로 모랫더미를 손으로 긁어내고 계속 깊이 파헤쳤다. 벨라데타가 연약한 손으로 돌레가 2미터나 되는 커다란 바위의 틈을 파헤치자 그 바위 밑에서 샘이 나타났다.

열 다섯 번째 - 1858년 3월 4일 화요일

2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 가브 강 건너편으로 밀려와서 모두 발현을 보고자 했으나, 벨라데타 혼자만이 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.

열 여섯 번째 - 1858년 3월 25일(성모 영보 대축일)

"나는 무염 시태인 성모이다."

열여덟 번째 - 1858년 7월 16일

마지막 발현 후, 벨라데타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조용히 살아가다.

성모님은 "나는 원죄 없는 시태이다"라고 밝히시고,
"회개하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라."는 메시지를 남기셨다.